사순 제 3주일 강론(2019년 3월 24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사순시기 잘 지내고 계시죠? 사순 시기도 벌써 3 주 째를 맞이하면서 중간 쯤 와 있습니다. 부활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 중간 점검 한 번 해볼 때입니다. 대충 지나다 보면, 아무 한 일도 없이 다 지나가고 맙니다. 사순 시기 잘 보내시고, 올 해는 더 기쁘고 행복한 부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사순 시기 동안, 매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한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이야기 합니다. 제발 죄 짓는 것을 멈추라고…

 이사야 예언자가 말합니다. “이제는 죄스러운 삶에서 제발 벗어나시오!” 에제키엘 예언자가 또 말합니다. “이 사악한 백성들아, 죄 짓고 사는 삶을 이제 그만 해라!” 다니엘 예언자가 또다시 말합니다. “하느님의 계명에 반하는 짓을 멈춰라!” 그래도 그 완고한 백성들이 알아 듣습니까? 오히려 바른말 하는 그 예언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래도 예언자들은 또 말합니다. 하느님은 자비가 가득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언제나 용서해 주시니까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도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에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종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군중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소식 하나를 전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있던 갈릴래아 순례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다 지방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짐승을 잡아 희생 제물을 바치며 기도하고 있던 유다인들을 무참히 죽여 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살해된 사람들은 당시 유다의 독립 운동에 가담하고 있던 열혈 당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다의 전통대로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소식에 덧붙여서 또 다른 참변을 예로 드십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시내 동남부에 위치해 있었던 실로암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열 여덟 사람에 대한 사고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율법 학자들은 재앙의 원인을 인간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사고를 당하거나 불행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고, 몸도 건강하고, 자식도 많고, 유복한 가정에서 복을 많이 받고 사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이고, 가난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고 믿었던 거지요.

 그래서 당시에 돈 많고, 권력이 높은 사람들, 사회의 지도층이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율법 학자들은 하느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구원되었다는 자만심을 갖고 자랑하며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일축하십니다. 불행이나 재앙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느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만과 교만으로 스스로 의롭고 정의롭고, 스스로 구원되었다고 뽐내고 살던 사람들에게 얼른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막 기회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무화가 나무는 매년 열매를 맺는 과일 나무입니다. 그런데 삼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쓸모 없이 땅만 축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베어버리라는 과수원 주인의 말과는 달리, 정원사는 한번 더 열매 맺을 기회를 달라고 청원합니다. 그리고는 물과 거름을 주고, 잘 돌보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 다음 기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잘라버리면 되지 않느냐고 탄원을 합니다.

 이 정원사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 하나가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당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율법 학자들을 가리키고, 더 나아가서는 회개하지 않고 사는 우리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도 무엇인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은 다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에 맞게 충실하고 의미있게 살아간다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내 맘대로 막 살아가면, 세상을 위해 필요한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베어 없어질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과거에 계속 실패를 거듭했더라도 언제나 예수님은 또다시 새로운 기회, ’second chance’ 를 주십니다. 과거에 그 어떤 과오나 잘못, 그 어떤 비리나 문제점이 있었는지 캐지 않습니다. 지난 삶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정원사가 말하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름과 물을 주시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 삶을 깔끔히 정리하고, 오늘 다시 한 번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려는 결심, 그리고 지난 삶에 대해 가슴아파하는 회개와 뉘우침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못 살고 있는지 잘 모를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헤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이 착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성찰과 기도로 내가 가고 있는 인생 여정을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올바른 길로 잘 가고 있는지… 그것이 사순 시기 동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느덧 사순 시기의 중간 쯤에 와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삶이 힘들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이런 저런 이유로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늘 나라로 향하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가는 언젠가는 베어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